

미국 사회에서 교육과 종교성의 관계*

이 현 송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미국 사회에서 교육 수준과 종교성 간의 관계를 종교성의 하위 차원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General Social Survey 2000~2008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성의 하위 차원에 따라 교육과 맺는 관계가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개인의 종교성을 인지적, 실행적, 체험·감정적 차원으로 구분했을 때, 인지적 및 체험·감정적 측면에서는 종교성과 교육 수준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신이나 종교적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약하며 종교적 체험을 하거나 종교적 감정을 느낀 적이 적다. 한편 실행적 측면은 혼자 하는 실행이나 남과 함께 하는 실행이나에 따라 교육과 맺는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혼자 하는 실행의 경우 교육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나 남과 함께 하는 실행의 경우 교육과 비례 관계를 갖는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덜하나 반대로 교회 예배나 종교 활동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전반적인 종교성과 교육이 맺는 관계는 매우 약한 수준의 반비례 관계로 나타났다. 종교성의 하위 차원들이 교육과 맺는 관계가 서로 상반되므로 전반적인 종교성이 교육과 맺는 관계는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남과 함께 하는 종교성'은 여타 종교성의 차원과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개인 중심의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이를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 연구를 요한다.

주제어: 종교, 종교성, 교육, 종교성의 다차원성, 세속화, 미국 사회

* 본 연구는 2011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학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종교로부터 멀어지는가? 미국인은 이 질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미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다. 근래로 오면서 미국인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그에 비례해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교육 수준과 종교 간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Bruce, 2002). 미국인 중 신을 믿는다는 사람은 90%를 넘는 반면 유럽은 그 절반인 40%에도 못 미친다. 종교에 관한한 미국인은 유럽의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

유럽인의 세속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의 영향이 흔히 언급됨에 비하여 미국인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의 효과는 별로 지적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교육이 대부분의 사회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교육과 종교성은 연관이 희박하거나 설사 있다고 하여도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식인층만 보면 종교적 믿음이 깊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의 지도자들은 흔히 성경을 인용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미디어에서 비춘다.

본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교육과 종교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교육과 종교성 간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¹ 교육과 종교성 간에는 과연 이론적으로 및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기에 경험 분석의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해 본다. 본 논문의 말미에서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일관되지 않

1. 미국인의 종교 분포를 보면 개신교 51.3%, 가톨릭 23.9%, 기타 기독교 3.2%, 유대교 1.7%, 기타 종교 3.0%, 종교 없음 16.1%이다(Pew Research, 2007). 종교가 있는 사람 중 기독교 전통(개신교, 가톨릭, 유대교)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과 3.0%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미국인의 종교성의 논의에서 기독교적 전통을 전제로 둔다.

은 분석 결과의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탐색해 본다.

II. 교육과 종교성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교육과 종교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이론은 세속화 명제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교 교육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주입하며 다양한 견해에 노출되게 함으로 학교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종교적 믿음이 약화된다는 주장이다(Berger, 1969). 세속화 명제는 주로 종교성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의 세계관이 세속화되는 경향을 강조한다. 학교 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교적 믿음을 약화시킨다. 첫째, 학교에서 주입하는 세계관은 인본주의적 전통 위에 서있다. 세속적 세계관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사고하고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종교적 세계관과 대치된다. 세속적 세계관은 신의 매개 없이 인간 스스로 복리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므로 종교적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둘째,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경험적 인식만을 진리 추구의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한다. 과학적인 지식은 인간의 지각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진리라고 강조하므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는 진리의 영역을 벗어난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초월적인 인식이나 계시적인 진리는 과학적 지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방법론은 기존에 당연시 하는 것을 의심하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것을 권장하는데, 종교적인 믿음은 의심보다는 신의 권위에 복종하고 따를 것을 강조한다.

셋째, 학교 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견해를 이해할 것을 권장하면서 상대적인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반면,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한다. 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진리와 거짓이 분명히 구분되는 흑백의 논리를 옹호하는 반면, 인간 사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흑백으로 분명히 구분될 수 없는 다양한 세계가 존재함을 가르친다. 학교에서 세계의 다양한 종교가 저마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믿는 종교의 절대성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요컨대 세속화 이론에 따르면 학교 교육을 오래 받을수록 세속적인 세계관과 종교적인 세계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종교적인 믿음이 약화될 것이다. 세속화 이론의 대표 주자인 피터 버거는 의식의 세속화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 동북부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주장한다(Berger, 2008).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경험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지된다. 종교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때 교육과 종교성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사람들의 의식에 종교성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신의 존재를 믿음’, ‘성경을 믿음’, ‘신이 세상일에 관여하며 통제하고 있다고 믿음’, 등을 사용하였을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적인 세계관을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Johnson, 1997; Sherkat, 1998; Schieman, 2010).

한편 교육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종교성에 영향을 미친다. 종교성의 실행적 측면은 교육을 통해 배양된 사회적 능력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교회와 신자들 간의 교류를 신앙생활의 일부로 강조한다.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믿음을 매개로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믿음이 깊다고 본다. 학교 교육은 신자의 교회 활동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학교 교육은 대인 관계의 기술과 조직 적응도를 높인다. 또한 학교 교육은 사회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높인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활동의 기회가 많고 사회적 관계 맺는 능력이 커지며, 경제적 능력 또한 사회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교회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의 지위와 연관되며 일종의 과시적 소비 혹은 지위 과시의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한다(Cotter and Song, 2009).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성의 사회적 측면은 교육 수준과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성의 사회적 측면을 ‘교회에 다니는

빈도’,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등의 지표로 측정하였을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회에 자주 나가며 종교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Glaeser and Sacerdote, 2008; McFarland et al., 2010; Brown and Taylor, 2007).

종교의 실행적 측면 중 대체로 혼자 하는 행위인 ‘기도’는 사회적 실행과는 다른 면을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기도를 더 자주 하며 기도의 내용도 경제적 도움이나 건강을 간청하는 내용이 많다. 이는 특히 흑인에게 많은데 종교가 어려운 사람들이 부닥뜨리는 현실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aker, 2008).

종교사회학자 더마레스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신성(deity)을 접하는 태도와 감정에서 보이는 차이를 ‘교회적인(church-like)’ 것과 ‘교파적인(sect-like)’ 것으로 구분하였다(Demerath, 196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체험을 하거나 느끼기보다는 인지적으로 신을 접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신자들은 신이 개인의 삶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인간 세계에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의 통제가 개인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행사되지 않으므로 신을 감정적으로 가깝게 체험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신을 접하는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것을 종교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신의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개입을 믿으며 신성을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종교생활 방식의 차이는 이후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되었다(Petersen, 1994; Shieman, 2010).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종교 생활의 차이는 선호하는 교회와 교리에 반영된다(Smith and Faris, 2005).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선호하는 기독교 ‘주류 교회(Mainline Church)’는 감정적으로 절제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종교 생활을 권장한다. 반면 신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복음주의 교회는 신의 힘이 개인의 일상에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신을 직접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권

장한다.

주류 교회 중에서는 성공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루터교회의 순으로 신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Smith and Faris, 2005).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며 남부 지역에서 세력이 강한 남침례교, 오순절교, 성결교 등의 복음주의 교회는 감정적으로 헌신하는 종교생활을 강조한다. 이 교회 신자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경험(born-again)이나 신성을 직접 체험하는 황홀경은 종교 생활의 핵심이다(Christian, 1998).

교육수준과 선호하는 교회 간에는 양방향의 인과 관계가 작용한다. 교육수준에 따라 자신의 세계관과 생활 방식에 부합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소속된 교회의 영향으로 교육 수준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 과거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교육이 믿음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다.² 따라서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본인 및 자녀가 얼마나 교육을 받을지 영향을 받는다(Lehrer, 1999).

교육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기존의 연구는 종교성은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종교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편의에 따라 사용하였다. 따라서 종교성의 어떤 측면을 반영한 지표가 선택되었는지에 따라 교육과 종교성 간에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를 보고하여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종교성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종교의 인지적 측면이나 체험 감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교육과 종교성은 부(-)의 관계를 가지지만, 종교의 실행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교육과 종교성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

종교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한 연구는 교육과 종교성이 연관이 없다고 보거나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선호하는 종교가 있는지’, ‘자신을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문항으로 전반적인 종교성 지표를 사용한 연구에서 교육 수준은 설명변수로서 별도로 언급되지

2. 근래에 들어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고등 교육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근래의 취학연령층에서는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주류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육 수준이 낮지 않다. 이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교육의 유용성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복음주의 신앙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세속적인 교육기관에 대해 자신감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McFarland et al., 2010).

않는다. 종교성을 구성하는 차원들 사이에서 교육과 맺는 관계가 서로 상충되므로 전반적 종교성을 측정할 지표가 교육과 맺는 관계가 약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을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III. 분석틀

기존의 연구가 종교성의 일부 측면만을 반영한 지표를 사용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육과 맺는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크게 인지적 차원(cognition), 실행적 차원(practice), 체험과 감정적 차원(experience and emotion)의 세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실행적 차원은 혼자서 실행하는 부분과 남들과 함께 실행하는 부분의 둘로 나누어서 전자를 ‘혼자 하는 실행’ 후자를 ‘사회적 실행’이라 명명하였다.³ 이와 함께 전체적인 종교성을 하위 차원의 종교성과 비교할 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종교성의 하위 차원과 각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들이다.

종교성의 인지적 차원은 신의 존재를 믿는 정도를 서열적으로 측정하였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을 믿지 않음’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불가지론적 입장인 ‘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음’, ‘초자연적인 힘을 믿음’, ‘신을 때때로 믿음’, ‘의심을 품고 믿음’, ‘신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 순으로 믿음의 강도가 높아진다. 기독교 전통에서 신을 믿는 것이 인지적 종교성의 핵심이지만 이외에도 ‘사후세계’, ‘천국’, ‘기적’을 믿는 것 또한 포함된다.

3. 종교성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스타크와 글록의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종교성의 하위 차원을 경험적, 의례적, 이념적, 결과적, 지적인 차원의 다섯 개로 구분하였다(Stark and Glock, 1968). 그러나 경험 연구에서 이 다섯 개의 하위차원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둘러싸고 한동안 논쟁이 있었다. 이후 종교성의 하위차원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시도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측면, 즉 인지적, 실천적, 경험 및 감정적 차원은 거의 모든 분류에서 포함하고 있다. 종교성의 하위 차원에 관한 논의는 Hill and Hood(1999)를 참조할 것.

〈표 1〉 종교성의 하위 차원과 측정 지표

종교성의 하위 차원	측정 지표
인지적 차원	- 신을 믿는가? - 사후세계를 믿는가? - 천국을 믿는가? - 기적을 믿는가?
실행적 차원 • 혼자 하는 실행 • 사회적 실행	-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는가? - 얼마나 자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가? - 종교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
체험·감정적 차원	- 중요한 종교 체험 - 일상적인 종교 감정 - 얼마나 신을 가까이 느끼는가?
전체적인 종교성	- 선호하는 종교가 있는가? -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가?

종교성의 실행적 차원은 혼자 하는 실행과 남과 함께 하는 사회적 실행으로 구분하였다. 혼자 하는 실행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빈도에 따라 전혀 ‘기도하지 않음’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까지 서열 척도로 측정하였다. 남과 함께 하는 실행으로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며, 교회의 행사나 다양한 봉사 활동 등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종교적 실천 행위이다. 교회 예배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참여의 빈도에 따라 서열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교적 체험·감정적 차원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드물게 맞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체험으로서 “다시 태어난 경험”(born-again)이 있는지, ‘종교 덕분에 인생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은 적이 있는지’, ‘종교적 체험이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의 세 개 문항을 종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빈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중요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단일 변수로 종합하였다. 종교적 체험의 두 번째 범주는 일상적으로 잔잔하게 느끼는 종교적 감정이다. 이는 종교적 감정을 측정하는 열 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 방법으로 정보를 축약하여 ‘일상적인 종교 감정’이라는 단일 변수로 종합하였다.⁴ 열 개의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

4. 일상적인 종교 감정을 측정하는 열 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신이 삶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음을 느낌’, ‘예배 시 기쁨을 느낌’, ‘종교에서 삶의 힘을 얻음’, ‘종교에서 삶의 위안을 얻음’, ‘일상적인 일에서 신의 도움을 청함’, ‘일상적인 일에서 신

인이 전체 변량의 51.6%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요인에 대한 각 변수의 요인 부하도는 0.5~0.8로서 일관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종교적 감정을 측정하는 단일 문항인 ‘얼마나 신을 가까이 느끼는가’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신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가능한 최고로 가까이 신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적인 종교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선호하는 종교가 있는가’와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가’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자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값만을 갖는 더미 변수로서 종교가 없는 사람을 판별해내는데 흔히 사용된다. 후자는 자신의 종교성에 대하여 ‘종교적이지 않다’에서 ‘매우 종교적이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에 따라 교육과 종교성이 맺는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유형에 따라 갈리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육 수준과 인지적 차원의 종교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가설 2: 교육 수준과 사회적 실행 차원의 종교성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가설 3: 교육 수준과 체험·감정적 차원의 종교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가설 4: 교육 수준과 혼자 하는 실행 차원의 종교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가설 5: 교육 수준과 전반적 종교성 간의 관계는 개별 차원의 종교성과 교육 간의 관계보다 강도가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의 조언을 구함’, ‘신이 자신을 직접 사랑하고 있음을 느낌’, ‘신이 타인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낌’, ‘신의 축복에 감사함’,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음’.

이중 가설 1, 2, 3, 4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 가설 5, 즉 교육수준과 전반적 종교성 간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구성하는 차원들이 교육수준과 연관을 맺는 방향이 서로 어긋나므로, 전반적인 종교성은 개별적인 차원의 종교성보다 낮으리라고 예상된다.

교육 수준이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종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성별, 혼인 지위, 자녀 유무, 지역, 인종과 민족인 것으로 나타난다(Johnston, 2007: 91-96).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종교성이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성이 높으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 사는 사람보다 종교성이 높으며,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종교성이 높으며, 남부지역에 사는 사람이 동부나 서부에 사는 사람보다 종교성이 높으며, 흑인과 히스패닉이 유럽계 백인보다 종교성이 높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거듭하여 증명된 사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종교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수준을 포함한 주요 설명변수에 대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추출된 교육수준과 종교성 간의 부분 상관계수는 다른 설명 변수들의 조건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종교성의 하위 차원들 간에 교육과 맺는 관계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반적인 종교성을 더미 변수로 측정할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이 아닌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수준 항의 회귀계수를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 2>는 각 설명 변수의 척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교육수준 이외의 모든 설명 변수는 종교성과 비례적인 관계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수 값이 재조정되었다. 예컨대 기존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남부 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종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본 분석에서 해당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종교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코딩되었다. 아울러

〈표 2〉 설명 변수의 척도 및 평균값

변수	척도(측정값)	평균(표준편차)
교육	고등학교 졸업 미만(0)~대학원 졸업(4)	1.7(1.2)
연령	25~89세 이상	51.5세(16.1)
성별	남성(0), 여성(1)	0.55*
혼인 지위	미혼 및 기타(0), 유배우 기혼(1)	0.5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0), 자녀 1명 이상 (1)	0.76*
지역	남부 이외 지역 (0), 남부 (1)	0.34*

주: * 더미 변수의 평균치는 '1'의 변수 값을 갖는 범주의 비율을 의미한다.

교육수준과 종교성 간에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수준의 제곱 항이 설명변수로 추가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집한 General Social Survey (GSS) 2000~2008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전국 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주관으로 1972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94년부터 격년으로 전환하여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GSS 자료는 18세 이상의 미국인들에 대해 매년 약 1,500~4,500명을 조사하며 전국적인 확률 표집 방식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응답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 조사마다 유사한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시기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다. 특히 GSS 자료는 종교성에 관한 기본 문항이 매 조사마다 포함되며 몇 년에 한 번씩 세부주제를 달리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종교 현상의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

본 분석에 활용된 2000~2008년의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사 자료에는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들 중 다섯 번 모두 측정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 한번, 특히 2004년 종교 체험을 주제로 심층 조사한 자료만 포함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일상적인 종교경험을 측정하는 10개의 개별 문항은 2004년에 단 한차례만 조사되었다.

백인과 흑인 및 근래에 이민 온 사람들의 종교 경험은 매우 상이하다 (Roberts, 2004). 흑인에게 교회는 신앙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흑인 교회는 지역 사회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백인에 대해 흑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근래에 이민 온

아시아계나 히스패닉의 경우 교회는 구직에서 복지활동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민족 정체성을 부여하는 등 ‘이민자 교회’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분석틀을 단순화하기 위해 유럽계 백인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⁵ 또한 교육 과정을 완료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령의 하한선을 25세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표본을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투입한 사례 수는 11,254명이다.

IV. 분석 결과

1. 인지적 차원의 종교성

다음의 <표 3>은 종교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신을 믿음’을 종속 변수로 하여 교육 수준을 포함한 설명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예상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혼인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남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수준과 인지적 종교성 간에 곡선형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교육 변수의 제곱 항을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얻었다. 교육 변수의 제곱항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부(-)인 것으로 보아 \cap 자형의 곡선 관계이다. 이는 중간 교육 수준의 사람이 교육 수준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종교적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인지적 차원의 종교성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교육 수준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혼인 지위, 자녀

5. 하나의 설명 모델에서 단순히 더미 변수만을 추가하여 백인과 흑인의 종교생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차이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더미변수를 적용한다면 상호작용의 문제, 즉 백인일 때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흑인일 때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모델을 단순화함으로써 인종의 차이에 따른 설명을 배제하고 교육과 종교성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전략을 취하였다.

〈표 3〉 ‘신을 믿음’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설명 변수	회귀계수(t-value)
교육	.030(.48)
(교육) ²	-.042(-2.93)**
연령	.004(3.32)**
성	.527(14.39)**
혼인지위	.202(5.05)**
자녀유무	.300(6.11)**
남부지역 거주	.422(11.10)**
R ²	.104** (F=88.08)

주: ** p<0.01에서 유의미함; 괄호는 t-value임.

〈표 4〉 교육과 인지적 종교성 간의 관계

인지적 종교성 지표	교육과의 부분 상관 ¹⁾
신을 믿음	-.122**
사후 세계를 믿음	-.081*
천국을 믿음	-.193**
기적을 믿음	-.122**

주: * p<0.05, ** p<0.01에서 유의미함.

1) 연령, 성별, 혼인지위, 자녀유무, 지역의 영향을 배제한 교육과 종교성 간의 부분 상관계수임.

유무, 남부 지역 여부 등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신을 믿을 가능성이 적으며, 사후세계나 천국이나 기적을 믿을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

종교성과 교육 수준의 연관 정도는 종교의 메시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신을 믿는다는 응답이나 사후세계를 믿는다는 응답은 교육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반면 천국을 믿는다는 응답은 교육과의 연관이 더 크다. 아마도 천국은 종교적 교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신이나 사후세계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아도 거부감이 덜 커지는 것 같다. 교육과 종교성 간의 관계는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아, 모든 종교성의 범주에서 교육과 맺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0.1~0.2에 머물고 있으며, 회귀 모델에 투입한 설명변수를 모두 합하여도 종속변수의 전체 변량의 10.4%만 설명한다. 즉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인구학적 변수에 의해 인지적 종교성이

결정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실행적 차원의 종교성

분석 결과, 남과 함께 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지 혹은 혼자 하는 종교 행위인지에 따라 교육과 맺는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종교 행위인 교회 예배나 다양한 종교 활동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한다. 그러나 혼자 하는 종교 행위인 기도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도가 떨어진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회 예배나 기타 남과 함께 하는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혼자 하는 기도는 그리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다.

혼자 하는 종교적 실행과 남과 함께 하는 실행은 상당히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 <표 6>에서 보면 혼자 하는 종교적 실행인 ‘기도’는 인지적 종교성인 ‘신을 믿음’ 및 체험·감정적 종교성인 ‘일상적인 종교 체험’과 매우 높은

<표 5> 교육과 실행적 차원의 종교성 간의 관계

실행적 종교성 지표	교육과의 부분 상관 ¹⁾
기도	-.048**
교회 예배에 참석	.101**
종교 활동 참여	.102**

주: ** p<0.01에서 유의미함.

1) 연령, 성별, 혼인지위, 자녀유무, 지역의 영향을 배제한 교육과 종교성 간의 부분 상관계수임.

<표 6> 실행적 종교성 지표와 인지적 및 체험·감정적 종교성 지표 간의 상관관계

	기도	신을 믿음	일상 체험	교회 참석	종교 활동참여
기도	1.0	.611	.670	.528	.431
신을 믿음		1.0	.582	.436	.334
일상 체험			1.0	.486	NA
교회 참석				1.0	.683
종교활동참여					1.0

주: 모든 상관계수는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상관도를 보인다(0.611, 0.670). 반면 사회적 실행인 ‘교회 예배 참석’이나 ‘종교 활동 참여’와는 상대적으로 상관도가 낮다(0.528, 0.431). 즉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에 대한 믿음이 더 굳으며 일상적으로 종교적 체험을 더 자주 깊게 하는 반면, 교회 예배나 종교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는다.

‘교회 예배 참석’과 ‘종교 활동 참여’는 서로 간에 매우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반면(0.683), ‘신을 믿음’이나 ‘일상적인 종교체험’과는 낮은 상관도를 보인다(0.334~0.486). 즉 교회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이 다양한 종교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거나 일상적으로 종교적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남과 함께 하는 종교적 실행은 혼자 하는 종교적 실행이나 인지적 및 체험적 종교성과는 상이한 것이다.

3. 체험·감정적 차원의 종교성

분석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적 체험이나 신을 느끼는 정도는 낮아진다. ‘다시 태어난 경험’이나 ‘삶을 변화시킨 종교적 경험’ 등 중요한 종교적 체험뿐만 아니라 ‘일상사에서 신이 도와주고 있음을 느낌’, ‘신의 축복에 감사함’ 등 일상적인 종교 감정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덜 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을 감정적으로 덜 가까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종교적 체험이나 감정이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표 7〉 교육과 체험·감정적 차원의 종교성 간의 관계

체험·감정적 종교성 지표	교육과의 부분 상관 ¹⁾
중요한 종교 체험	-.058**
일상적 종교 체험	-.057*
신을 감정적으로 가까이 느낌	-.113**

주: * p<0.05, ** p<0.01에서 유의미함.

1) 연령, 성별, 혼인지위, 자녀유무, 지역의 영향을 배제한 교육과 종교성 간의 부분 상관계수임.

〈표 8〉 체험·감정적 종교성과 ‘기도’ 및 ‘신을 믿음’과의 관계

	중요 체험	일상 체험	신을 느낌	기도	신을 믿음
중요 체험	1.0	.342	.319	.470	.395
일상 체험		1.0	.629	.670	NA
신을 느낌			1.0	.589	NA
기도				1.0	.611
신을 믿음					1.0

주: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경험’이나 ‘삶을 변화시킨 종교적 경험’과 같이 중요한 종교적 체험은 일상적 종교 체험이나 신에 대한 감정적 친근성과는 차이가 있다. 〈표 8〉에 보면 중요한 종교적 체험은 일상적 종교 체험이나 신에 대한 감정적 친근성과 상관도가 낮음은 물론 종교성의 다른 차원인 ‘기도’나 ‘신을 믿음’과도 관련성이 낮다. 반면 일상적 종교 체험이나 신에 대한 감정적 친근성은 ‘기도’나 ‘신을 믿음’과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즉 중요한 종교적 체험은 종교성의 다른 측면과는 매우 동떨어진 특이한 범주임을 확인한다. 반면 기도를 자주 하고 신에 대한 믿음이 깊을수록 일상적인 종교 체험을 많이 한다.

4. 전반적인 종교성

전반적인 종교성 지표와 교육 수준 간에는 예상과 같이 약한 부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종교성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각 하위 차원별 종교성 지표와 교육 수준이 맺는 관계를 비교하면 예상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무리 교회 예배나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도 믿음이나 체험의 측면에서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교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전반적인 종교성과 교육 간의 관계는 하위 차원의 종교성과 교육의 관계보다 강도가 떨어진다. ‘자신을 얼마나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항목과 교육 간의 관계($r = 0.029$)는 다른 모든 종교성 지표와 교육 수준의 관계보다 훨씬 낮다. 예컨대 교육과 인지적 측면의 종교성 간의 관계나

〈표 9〉 교육과 전반적인 종교성 간의 관계

전반적인 종교성 지표	교육과의 부분 상관 ¹⁾
선호하는 종교 유무	-.046*
자신을 얼마나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가	-.029*

주: * $p < 0.05$, ** $p < 0.01$ 에서 유의미함

1) 연령, 성별, 혼인지위, 자녀유무, 지역의 영향을 배제한 교육과 종교성 간의 부분 상관계수임.

혹은 교육과 실천적 측면의 종교성 간의 관계는 각각 피어슨 상관계수가 0.1~ 0.2임에 비하여 교육과 전반적 종교성 간의 상관계수는 0.05에도 못 미친다. 교육수준의 제곱 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에서 교육과 전반적 종교성 간에는 곡선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지만, 사실 상 교육이 전반적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이다.

V. 요약 및 토론

본 연구의 결과 교육 수준과 종교성 간의 관계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는 종교성이 서로 상이한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성의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교육과 맺는 관계가 상이하다. 개인의 종교성을 인지적, 실행적, 체험·감정적 차원으로 구분했을 때, 인지적 및 체험·감정적 측면에서는 종교성과 교육 수준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신이나 종교적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약하며 종교적 체험을 하거나 종교적 감정을 느낀 적이 적다. 한편 실행적 측면은 혼자 하는 실행이나 남과 함께 하는 실행이나에 따라 교육과 맺는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혼자 하는 실행의 경우 교육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나 남과 함께 하는 실행의 경우 교육과 비례 관계를 갖는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덜하나 반대로 교회 예배나 종교 활동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남과 함께 하는 종교적 실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종교성 지표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남과 함께 하는 종교적 실행은 혼자 하는 종교적 실행과 왜 상이한 결과를 보일까? 이는 혼자 하는 종교적 실행이 종교의 인지적 차원 및 체험·감정적 차원과 공유하는 특성이 더 많은 반면, 남과 함께 하는 종교적 실행은 종교성의 다른 차원과 공유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다.

신을 믿는 인지적 측면이나 신을 경험하는 체험·감정적 측면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관여된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함으로서 신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신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위이다. 신을 느끼는 것 또한 신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혼자 하는 종교 활동인 기도 또한 개인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신을 믿고 체험하는 것과 동일하다. 남과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기도 행위는 대체로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즉 인지적 측면과 체험·감정적 측면의 종교성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종교적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은 남과 함께 하는 행위이다. 이는 개인의 믿음과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활동이다.

개신교 교리는 신과 개인 간에 직접적인 소통을 핵심으로 한다. 목회자의 중개나 신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은 개인의 문제이며, 개인 각자가 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인의 다수가 개신교를 믿으므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남과 함께 하는 종교 활동의 부분만이 강화될 뿐 혼자서 하는 종교 활동의 부분은 약화된다는 것은 결국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종교성이 약화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신을 독실하게 믿고 종교적 체험을 자주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것이며, 거꾸로 남과 함께 하는 종교 활동을 많이 할수록 혼자 하는 성격의 종교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혼자 하는 종교성이 진짜 믿는 것이고 남과 함께 하는 종교 활동은 거짓으로 믿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 혼자 하는 종교성에 치중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남과 함께 하는 종교성에 치중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 둘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다만 혼자 하는 종교성과 남과 함께 하는 종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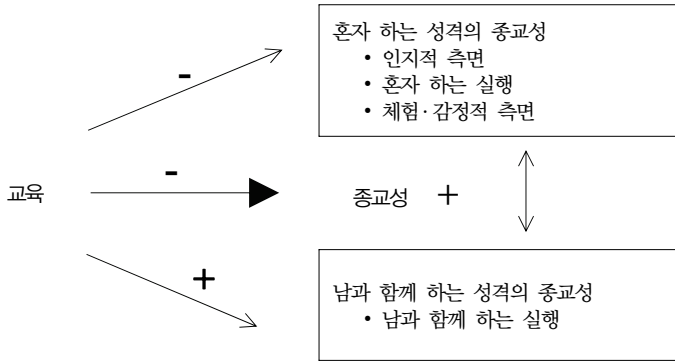


그림 1. 교육과 종교성 간의 관계

은 독립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이 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것은 무리로 생각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 수준은 종교성과 약한 관계만을 맺고 있으며 어떤 측면의 종교성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교육 수준과 종교성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어떤 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교성과 교육 간의 관계가 일관성 없이 보고된 것은, 교육 수준과 종교성 간의 관계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성의 하위 차원을 구분하지 못한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종교성의 특성인 남과 함께 하는지 혹은 혼자 하는지의 구분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보강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 남과 함께 하는 종교성은 미약한 개념으로 교회 예배 참여를 제외하고는 소홀히 된 영역이다. 예컨대 ‘교회의 의례에 참여함’, ‘교회의 소모임 활동에 참여함’,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직위를 맡음’ 등 예배 이외의 종교적 의례나 신자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문항을 통해 남과 함께 하는 종교 활동이 종교성의 다른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종교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만 관여된 것으로 ‘남과 함께 하는 종교성’은 종교성의 중요한 범주로 될 수 없다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종교성이 약해진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⁶ 그러나 남과 함께 하는 종교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종교 활동에 참여는 하나 믿음은 약한(participating with

less believing)’ 사람들 또한 독자적 유형의 종교 신자로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근래에 신을 적극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단계의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종교 활동에 참여는 하나 믿음은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류로 이행하는 전 단계에 있는지도 모른다(Lim et al., 2010; 이현송, 2009). 예컨대 영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레이스 데이비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믿음은 없는(belonging without believing)’ 신자의 유형과 비교될 수 있겠다(Davie, 2000). 유럽의 경우 이러한 사람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종교성을 상실해 가는 과도기의 현상으로 파악되는데(Voas, 2008), 미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지는 경험 연구의 대상이다.

투고일자: 2011-04-25 심사일자: 2011-05-25 게재확정: 2011-06-13

참고 문헌

- 이현송. 2009. 「불분명한 믿음과 미국 사회의 세속화?」. 『한국사회학』 43권 4호. 한국사회학회. pp. 147-179.
- Baker, Joseph O. 2008. “An Investigation of the Sociological Patterns of Prayer Frequency and Content.” *Sociology of Religion* 69(2). pp. 169-85.
- Berger, Peter. 1969. *The Sacred Canop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Books.
- Berger, Peter. 2008(February). “Secularization falsified.” in *First Things: A Monthly Journal of Religion and Public Life*, available online at: <http://www.firstthings.com/article/2008/01/002-secularization-falsified-1>.
- Bruce, Steve. 2002. *God is Dead, Secularization in the West*. London: Blackwell Publishing.
- Brown, Sarah and K. Taylor. 2007. “Religion and Education: Evidence from the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63. pp. 439-60.
-
6. 에밀 뒤르켐이 관찰한 오스트레일리아 부족사회의 종교 현상에서는 남과 함께 하는 종교 활동, 즉 종교적 의례 등이 그들의 종교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Durkheim, 1995(1912)).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개신교와 가톨릭 간에 종교적 의례의 중요성을 둘러싸고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은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행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남과 함께 하는 종교 활동의 위상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 Cotter, David A. and Younghwan Song. 2009. "The Religious Time Bind: U.S. Work Hours and Religion." *Social Indicator Research* 93. pp. 209-214.
- Demerath, Nicholas J. III. 1961. "Social Stratification and Church Involvement: the Church-Sect Distinction Applied to Individual Participat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4). pp. 146-154.
- Davie, Grace. 2000. *Religion in Modern Europe: A Memory Mu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rkheim, Emile. 1995 (originally 1912).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 Glaeser, Edward and Bruce I. Sacerdote. 2008. "Education and Religion." *Journal of Human Capital* 3(2). pp. 188-215.
- Hill, Peter and Ralph Hood. 1999. *Measures of Religiosity*.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 Johnson, Daniel C. 1997. "Formal Education vs. Religious Belief: Soliciting New Evidence with Multinomial Logit Model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2). pp. 231-46.
- Lehrer, Evelyn L. 1999. "Religion as a Determinant of Educational Attainment: An Economic Perspective." *Social Science Research* 28(4). pp. 358-79.
- Lim, Chaeyoon, Carol Ann McGregor, and Robert D. Putnam. 2010. "Secular and Liminal: Discovering Heterogeneity among Religious Non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9(4). pp. 596-618.
- McFarland, Michael, Bradley R.E. Wright, and David L. Weakliem. 2010. "Educational Attainment and Religiosity: Exploring Variations by Religious Tradition." *Sociology of Religion* 72(2). pp. 166-187.
- Petersen, Larry R. 1994. "Education, Homogamy, and Religious Commit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2). pp. 122-134.
- Roberts, Keith A. 2004.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4th ed.). Belmont, CA: Wadsworth.
- Sherkat, Darren E. 1998. "Counterculture or Continuity? Competing Influences on Baby Boomers' Religious Orientations and Participation." *Social Forces* 76(3). pp. 1087-1114.
- Shieman, Scott. 2010.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s about God's Influence in Everyday Life." *Sociology of Religion* 71(1). pp. 25-51.
- Smith, Christian. 1998. *American Evangelicalism: Embattled and Thriv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Christian and Robert Faris. 2005. "Socioeconomic Inequality in the American Religious System: an Update and Assess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4(1). pp. 95-104.
- Stark, Rodney and Charles Y. Glock. 1968. *American Piety: The Nature of Religious Commitment*.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Voas, David. 2009. "The Rise and fall of fuzzy fidelity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2). pp. 155-168.

Relationship of Education and Religiosity in the American Society

Lee, Hyun Song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 and religiosity in the case of the Americans. Religiosity is conceptualized into three dimensions, which are cognition, practice and experience-emotion. For the analysis, the 2000~08 General Social Survey dataset is used. The analysis tell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educational attainment varies by the dimension of religiosity.

Religiosi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educational attainment in terms of the cognitive and the experience-emotional dimension of religiosity, respectively. The more educated they are, the less they believe in God and have religious experiences and emotion less frequently. Concerning the dimension of religious practice, the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attainment varies by whether the practice is doing it alone or doing it together with others. Doing it alone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attainment while doing it together has positive relationship. The more educated they are, the less they pray but participate more in the worship service and church activities.

The overall religiosity has a weak but negative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attainment. Since the relation of each dimension of religiosity with educational attainment doesn't coincide with each other, it is inevitable that the overall concept of religiosity has a very weak relationship with educa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religiosity of doing practices with others' doesn't belong to the same category as other dimensions of religiosity. How the 'doing religious practices with others' can be conceptualized as an independent concept of religiosity needs to be further studied.

Key Words: religion, religiosity, education, multidimension of religiosity, secularization, American society

이현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길 47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Tel_010 2313 9061
E-mail_hslee@hufs.ac.kr

